



## 유럽증시, 추가 모멘텀 부재로 하락전환

### 유럽 증시 리뷰

4 일(월) 미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증시는 ECB 회의 금리 동결 기대감, 중국 부동산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으나, 추가 모멘텀 부재한 영향으로 하락 전환(STOXX 500 -0.06%, DAX -0.1%, FTSE 100 -0.2%, CAC 40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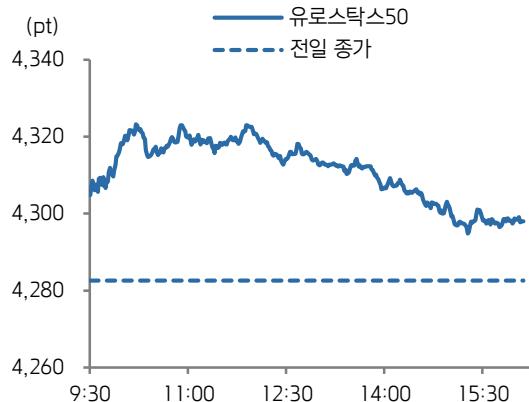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은 7 천억원 규모 회사채의 상환 기간을 2026년까지 3년 연장을 승인 받음. 이번 채권은 9월 4일 만기를 맞는 채권으로 향후 3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 비구이위안은 지난달 7일 만기가 돌아온 액면가 10억달러 채권 2종의 이자 2250만달러(약 298억원)를 지급하지 못한데 이어 지난달 14일에는 위안화 표시 채권 6종 등 총 11종의 채권 거래가 중단.

지난 1일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 등 중국 1선도시에서 1주택 기준을 완화하여 대출이력과 상관없이 무주택자에게 1주택 담보대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 베이징시의 경우, 대출기록이 있는 무주택자가 아파트 매수시 기준에는 최대 40%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기준 완화 이후 최대 65%까지 대출이 가능. 담보대출 금리도 2주택(5.25%) 대비 약 0.7%포인트 낮은 약 4.55%가 적용.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경제에서 민영기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산하에 민간경제개발국을 설치, 민간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수립하겠다고 밝힘.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공업기업의 일자리 창출 비중은 2012년 32.1%에서 2022년 48.3%, 납세액 기준 민간기업 비중은 2012년 48%에서 2021년 59.6%로 확대되었으며 발개위 부국장은 “민간경제와 국유경제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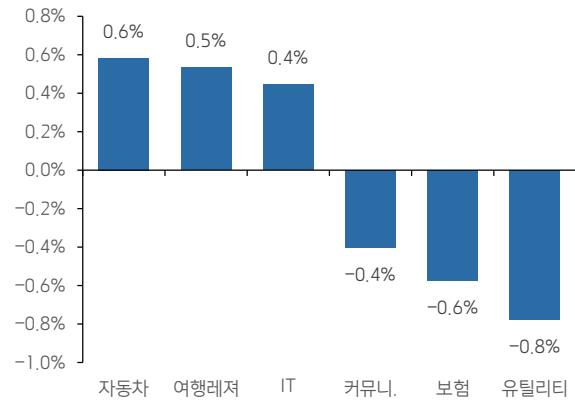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흑해곡물협정을 중점적으로 논의. 지난 7월 17일 러시아의 종료 선언으로 중단된 흑해곡물협정의 재개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 졌으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요구 사항이 모두 이행되기 전까지는 협정을 재개할 수 없다는 기준의 입장 유지. 러시아는 지난달 양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새로운 곡물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러시아가 카타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자국산 곡물을 튀르키예에 할인가에 공급하면 튀르키예가 이를 추가로 가공해 필요 국가에 제공하는 방식.

### 유로스톡스50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84.55	+0.81%	USD/KRW	1,319.24	+0.04%
코스피 200	341.02	+0.81%	달러 지수	104.11	-0.13%
코스닥	919.16	-0.06%	EUR/USD	1.08	+0.01%
코스닥 150	1,449.42	-0.53%	USD/CNH	7.28	+0.01%
S&P500	4,507.66	-0.16%	USD/JPY	146.48	+0.01%
NASDAQ	14,034.97	+0.11%	채권시장		
다우	34,721.91	-0.48%	국고채 3년	3.732	+4.5bp
VIX	13.57	-2.23%	국고채 10년	3.855	+7.5bp
러셀 2000	1,899.68	-0.19%	미국 국채 2년	4.879	+0bp
필라. 반도체	3,670.93	+0.74%	미국 국채 10년	4.179	+0bp
다우 운송	15,725.20	-1.27%	미국 국채 30년	4.294	+0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97.11	-0.42%	WTI	85.87	+0.37%
MSCI 전세계 지수	686.15	-0.25%	브렌트유	89	+0.51%
MSCI DM 지수	2,986.02	-0.18%	금	1964.4	-0.14%
MSCI EM 지수	980.33	-0.81%	은	24.04	-0.79%
MSCI 한국 ETF	62.45	-0.78%	구리	379.65	-0.4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17%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보합.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16.5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체크 사항

1. 미증시 휴장 및 유럽증시 약보합 결과가 국내 증시 장초반에 미치는 제한적인 영향
2. 호주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이후 원/달러 환율 변화
3. 2 거래일 연속 순매수세에 나서고 있는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8 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주식시장에서 양호하게 소화한 가운데, 향후 매크로 상 주가 결정 동인은 금주 예정된 ISM 서비스업 PMI, 연준 인사들 발언보다 차주 예정된 8 월 소비자물가에 달려있음. 8 월 헤드라인 CPI 컨센서스는 3.5%로 7 월 3.2%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시장에서 상당부분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WTI 유가는 지난해 기저효과가 작용하는 구간에 돌입한 가운데, 현재 85 달러를 상회하면서 6 월 이후 4 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단기적인 경계 요인(6 월말 70.6 달러 → 7 월말 81.8 달러 → 9 월 현재 85.9 달러). 지난 7 월 헤드라인 CPI 상승(3.0% YoY → 3.2%)에 영향을 미친 것도 유가 포함 에너지 품목 물가의 반등에서 기인한 상황 속에서(6 월 -16.7% YoY → 7 월 -12.5%), 최근 유가 강세는 8 월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추가 반등을 예고.

현시점에서 유가 상승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에너지 인플레이션 상승 →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 시장금리 상승”을 초래하면서 증시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다만, 최근 미국의 노랜딩 전망 후퇴(경기서프라이즈 지수는 7 월 중 80pt 대로 ‘21 년 이후 최고치 기록한 이후 현재 52pt 대까지 하락), 미국 8 월말 기점으로 드라이빙 시즌 종료 등 수요 단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적을 것으로 판단. 이를 감안 시 공급단에서는 산유국 감산 연장 불확실성이 있겠으나,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상승이 유발하는 증시 변동성의 지속 기간은 길지 않을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고용 결과를 반영한 가운데, 외국인의 순매수 속 반도체, 2 차전지 등 양시장 주도 업종들의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혼조세 마감(코스피 +0.8%, 코스닥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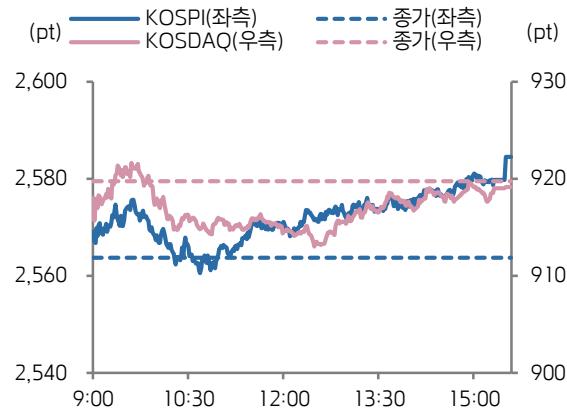
금일에는 미 증시 휴장 & 유럽 증시 약보합 vs 환율 하락 등 대외 상하방 요인을 반영하면서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장중에는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및 그에 따른 환율 변화, 부동산 위기 진정된 중국 증시 흐름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중국 소비 관련주 등 업종간 차별화 장세를 이어갈 전망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환경 호전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2 거래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9 월 이후 외국인은 코스피를 약 7,700 억원 순매수하면서 증시 반등을 견인한 상황. 물론 추후 매크로 이벤트에 영향을 받으면서 매매 패턴이 수시로 변할 소지는 있긴 함. 또 이들은 6 월 -1.0 조원 → 7 월 -1.9 조원 → 8 월 -0.9 조원 등 3 개월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기에, 9 월에도 순매도세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존재.

그러나 지난 6~8 월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 금액(약-4.0 조원)의 대부분이 2 차전지 테마가 붙으면서 개인들의 순매수가 집중됐던 철강 업종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6~8 월 철강업종의 외국인 순매도 -4.8 조원 vs 개인 +5.5 조원). 철강 업종의 순매도를 제외하면 반도체(6~8 월 +3.4 조원) 포함 코스피 전반에 걸친 이들의 수급 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보임. 8 월 수출(7 월 -16.4% → 8 월 -8.4%)가 감소폭을 축소하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 실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23 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은 6 월말 182 조원에서 9 월 현재 175 조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되긴 했으나, ‘24 년 영업이익 전망은 6 월말 270 조원에서 9 월 현재 271 조원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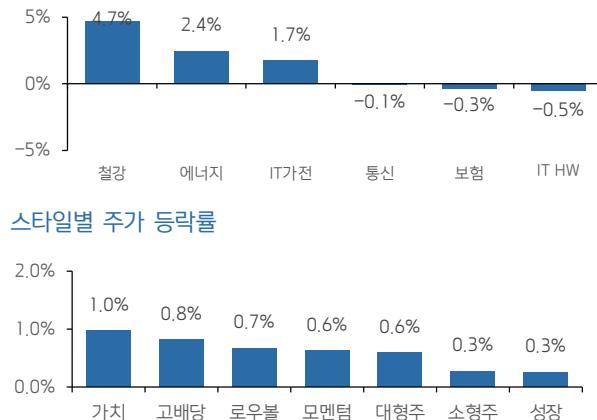
과거 외국인 순매수 패턴(2010 년, 2016 년)을 반추해보면, 수출과 이익 전망이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바이코리아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 9 월 FOMC 까지 매매 방향성은 수시로 바뀔 수는 있어도, 이들의 기조 자체는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한 순매수 추세를 전제로 시장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

## KOSPI &amp;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